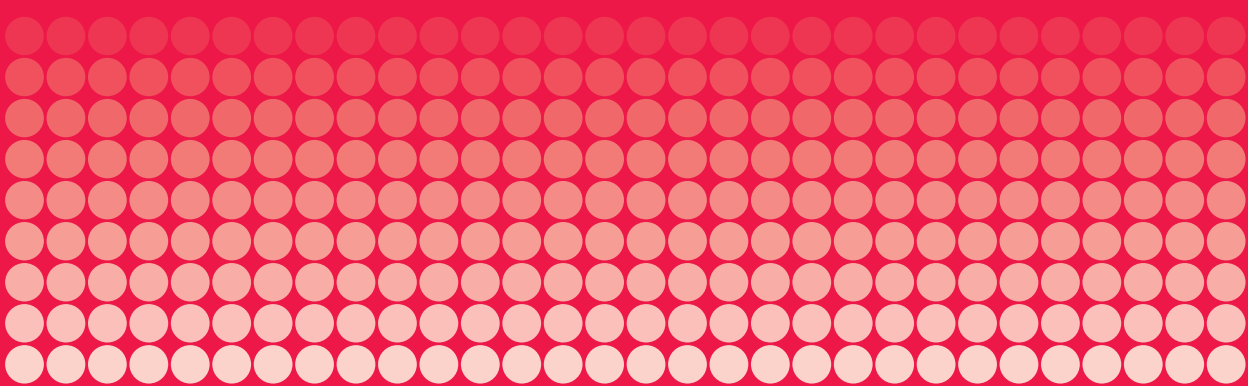


# SIPRI YEARBOOK 2019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한국어 요약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IPRI는 분쟁 및 군비, 군비통제, 군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제연구소이다.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데이터와 분석, 권고사항 등을 정책결정자, 연구자, 언론 및 관심 있는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 SIPRI 연감

2019년 SIPRI 연감은 전 세계 군사비 지출, 국제무기이전, 무기생산, 핵전력, 무력갈등, 다국적 평화활동 분야의 독자적인 데이터 및 군비통제, 평화, 국제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에 대한 최신의 분석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2019 SIPRI 연감을 요약한 내용이며 연감에 포함된 표본 데이터 및 그 분석을 제공한다.

## 목차

1. 도입: 2018년 국제안정과 인간안보	1
<b>무력분쟁 및 분쟁관리</b>	
2. 무력분쟁 및 평화프로세스	2
3. 평화활동과 분쟁관리	4
<b>군사비 지출 및 군비</b>	
4. 군사비 지출	6
5. 국제무기이전과 무기생산동향	8
6. 세계 핵전력	10
<b>비확산, 군비통제, 군축</b>	
7.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 확산 방지	12
8.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14
9. 재래식 군비통제	15
10.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16
부록	18



## 1. 도입

### 2018년 국제안정과 인간안보

댄 스미스 DAN SMITH

본 책자는 제50호 SIPRI 연감이다. 지난 수 년간 SIPRI 연감은 세계 정치 및 군사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군비, 군축 및 국제안보에 관한 중요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최근 연감들에서 보이는 추세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2018년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미국의 대북외교(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모호한 로드맵), 예멘 폭력사태 제한과 종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평화협정, 기후변화의 안보적 함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논의 시작 등 몇몇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이란 핵 합의 및 중단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 Treaty) 탈퇴와 몇몇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군사비 지출, 무기이전 및 전세계적 무력분쟁 발생률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 측면은 여전히 부정적 측면에 못 미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전략핵 재개발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은 핵 전력 강화 및 핵무기 현대화, 새로운 우주군 창설 제안,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확대를 포함한 전략적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러시아 노선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광범위하다. 이러한 국제정치 분위기 속에서 2018년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을 비롯해 영국에서 일어난 신경작용제 암살 기도 사건은 군축 및 군비통제체제의 실행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한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현 국제 체제는 강력한 현상유지세력(status quo power)의 부재 속에서 암묵적 규범과 가정은 고사하고 명시적 법률과 규칙이 계속 존중되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모두 핵심 지역의 정치 지리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체제 내 세력균형에 이르기까지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기류는 2018년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지속되었던 긴장관계, 미중 '무역전쟁(trade war)',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예멘 무력분쟁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힘겨루기를 해온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갈등을 통해 입증되었다.

기후변화와 안보문제가 얽혀있는 문제들은 인간안보 및 여러 나라의 국가안보, 국제적 안정에 심각하고 불가피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시정조치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금세기 중반 또는 그 이전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의제나 제도들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군비 통제 및 군축 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과 다자적 접근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세계정치를 규정하는 복수의 패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 2. 무력분쟁과 평화프로세스

현대의 무력분쟁은 정규군과 민병대, 무장 민간인이 복합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분쟁지역으로 명확히 규정된 장소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 다양한 강도의 분쟁과 짧은 휴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띤다. 2018년 초, 전세계 강제이주민은 총 6,85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2,500만 명 이상이 난민이다. 아프가니스탄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콩고민주공화국(DRC),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등의 국가에서는 강제이주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 미주

2018년 미주지역에서 콜롬비아 평화협정 이행 문제가 불거졌다. 콜롬비아는 지역 내 유일하게 무력분쟁이 진행중인 국가지만, 콜롬비아 외 중남미 여러 국가에도 이미 조직폭력집단과 비정부 무장단체들의 증가에 따른 사회불안과 치안 문제가 만연해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난민사태와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역 불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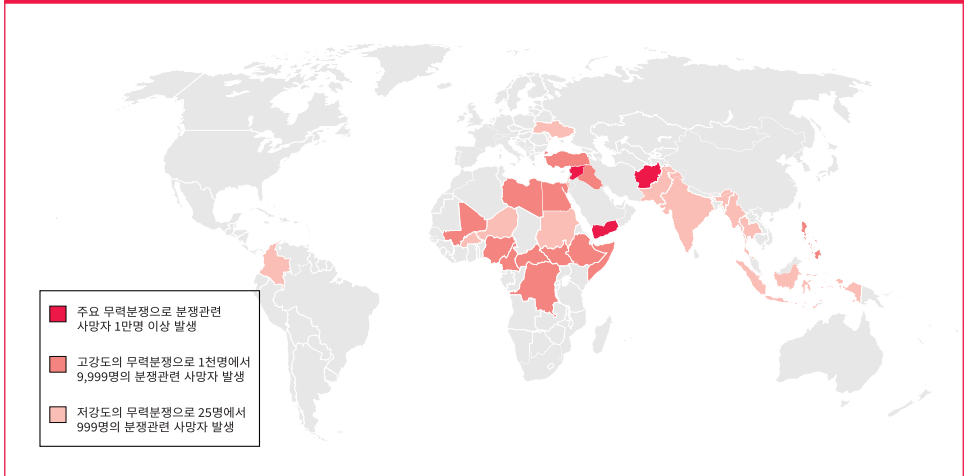
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이 니카라과에서는 정치적 불안과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경제 문제와 고질적인 범죄 및 부패는 민주주의 신뢰도 또한 악화시켰다.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2018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 7개국이 무력분쟁을 겪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무력분쟁으로 전투원과 민간인 4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여러 평화프로세스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2018년 말 분쟁 당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현지에서의 폭력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지역 및 전세계 강대국들 또한 상이한 입장을 취했다.

최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인종 및/또는 종교적 양극화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와 연계된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국가<sup>Islamic State</sup> 주둔 지역, 중국, 인도, 인도

### 2018년에 발생한 무력분쟁



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지에서 초국가적 지하드 집단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를 두고 휴전에 재합의를 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 유럽

2018년 유럽에서 유일하게 발생한 무력분쟁은 우크라이나 분쟁이었으며, 여러 차례 일시적인 휴전을 제외하고는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없었다. 그 밖의 지역, 특히 구-소련 지역 및 흑해 지역과 같이 고도로 군사화되고 경쟁적 안보 상황에 처한 지역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인한 긴장이 남아 있다. 더욱 눈여겨 볼만한 점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사이의 국명 분쟁이 2018년 말을 기해 거의 해결되었다는 점과 바스크 분리주의 단체인 ETA(Euskadi Ta Askatasuna)가 공식적으로 해산했다는 점이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

2018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시리아, 터키, 예멘 등 총 7개 국가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했다. (1) 외부 동맹과 이해관계 변화에 따른 지역 내 국가간 경쟁, (2) 폭력적 지하드 집단의 지속적인 위협, (3) 물을 둘러싼 경쟁 및 기후변화 영향의 증가 등 세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지역의 안보딜레마를 형성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가자지구 내 여러 팔레스타인 조직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분쟁과 민간인 소요사태는 2014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시리아 내전의 종결은 요원해 보이지만, 2018년 시리아 정부가 영토통제권을 통합하고 이슬람국가(IS)를 제압함으로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은 여전히 세계

에서 가장 파괴적인 분쟁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예멘의 경우 항구도시 호데이다<sup>Hodeida</sup>를 중심으로 벌어진 전쟁과 휴전의 반복으로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2018년 말 후티 반군<sup>Houthis</sup>과 예멘 정부간 체결된 스톡홀름 협정<sup>The Stockholm Agreement</sup>은 분쟁 및 인도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8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등 11개국이 무력분쟁을 겪었다. 이들 분쟁 대부분은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차드호 유역<sup>Lake Basin</sup>과 사헬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이처럼 분쟁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폭력적 이슬람 단체 및 여타 무장단체와 범죄조직의 초국가적 활동에 따른 것이며, 극심한 빈곤과 비효율적 정부, 경제적 취약성과 낮은 수준의 회복력 등 과도 연관되어 있다. 2018년 이 지역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문제는 (1) 아프리카 지역 대테러활동의 지속적인 국제화, (2) 선거와 연관된 폭력의 규모와 빈도의 변화, (3) 물 부족과 기후 변화 영향 증가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다만 2018년 7월에 체결된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간의 평화 협정은 아프리카의 뿔<sup>Horn of Africa</sup>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적 변수였다고 할 수 있다. ●



### 3. 평화활동과 분쟁관리

2018년에 새롭게 창설된 유일한 다자간 평화활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라크임무단(NMI)이며, 종료된 활동은 레소토의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와 라이베리아임무단(UNMIL)이다. 같은 해에 진행된 다자간 평화활동은 60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다자간 평화활동 수행 인력은 3년 연속 감소해 2018년 말 144,791명을 기록했다. 유엔 평화활동에 95,488명(2018년 2.9% 감소)이 참여했고, 지역기구와 연맹, 국가간 특수연합 등에 의해 진행되는 비유엔 다자간 평화활동에는 49,303명이(2018년 3.7% 증가) 참여했다. 비유엔 다자간 평화활동 참여인력 증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프가니스탄 지원임무단(RSM)을 강화한 데 대부분 기인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배치된 총 인력은 3년 연속 감소한 104,238명으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유엔 평화활동 동향

평화활동 전체 인력의 약 66%가 유엔의 평화활동에 파견되어 있고, 약 72%가 아프리카에 배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아프리카 내 평화활동 파견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유엔 평화활동의 군사적 해법에 대한 확신이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예산 및 사망률 문제 등 유엔 평화활동을 둘러싼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예산은 2016-17년 미화 79억 달러에서 2018-19년 미화 67억 달러로 감소했는데, 이는 새로운 접근법이나 효율성 향상보다는 이미 철수가 예정되어 있던 임무단 활동종료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임무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르푸르 유엔-아프리카연합 혼성 임무단(UNAMID)과 콩고민주공화국안정화 임무단(MONUSCO)의 활동종료에 따라 추가 예산 감축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감축 역시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도 적대행위로 목숨을 잃은 유엔 평화유지군은 27명으로 2017년보다 현격히 감소했다. 이는 2017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하지만 2017년은 예외적으로 적대행위로 인한 사망자 수가 높았던 해였고 파견인력 수 또한 2017년보다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1,000명 당 적대 행위에 따른 사망자 수는 사실상 2013-16년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엔 말리안정화임무단(MINUSMA)의 상황은 지난 해보다 개선된 반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임무단(MINUSCA)과 콩고민주공화국안정화임무단의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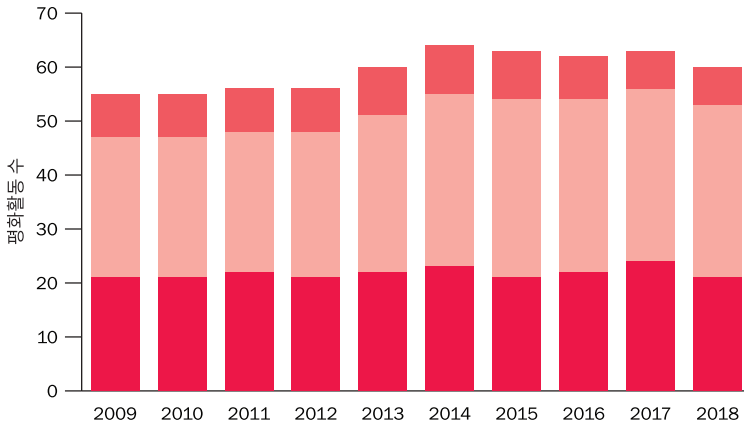
#### 군사적 해법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유엔 평화활동에 군사적 해법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훈련 및 멘토링 임무단(예: 지역군 활성화를 위한 이라크임무단과 아프가니스탄지원임무단)과 지역연합에 바탕을 둔 다국적 비평화활동(예: 보코하람에 대응하기 위한 사헬 5개국 합동군(JF G5S)과 다국적연합군(MNJTf)) 역시 일찌감치 군사적 해법을 강조해왔다.

유엔 평화활동은 분명 여러 도전에 직면해있지만, ‘반군’ 또는 ‘테러리스트’에 대응하기 위해 정 부군을 훈련시키고 다자간 비평화활동을 조직



## 2009-18 실행기관 유형에 따른 다자간 평화활동 숫자



실행기관: ■ UN ■ 지역기구 또는 연맹 ■ 특수 연합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헬 지역의 경우 지역 불안정은 더 심해졌고, 사헬 5개국 합동군(JF G5S)과 다국적 연합군(MNJTf)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정부군들은 심각한 인권 유린에 연루되었다.

###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혁

유엔은 ‘평화유지활동 개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유엔 사무국은 적대행위에 따른 사망률을 줄이는 것과 관련한 크루즈 보고서(Cruz Report)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성학대(sexual abuse) 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고 평화유지 활동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1일, 유엔은 유엔 평화안보 구조 개혁안을 실행에 옮겼다. 유엔 회원국 및 기타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은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를 위한 행동(A4P, Actions for Peace)의 맥락에

서 2018년 민간인 보호, 안전과 안보, 성과와 책임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룬 ‘공동의 책무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f Shared Commitments)’에 합의했다.

유엔 사무국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개혁안을 단행하고 있지만, 훈련과 멘토링 임무 및 다자간 비평화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향후 활동 방향이나 다른 형태의 평화/안보 개선 활동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지 여부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



## 4. 군사비 지출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미화 1조 8,22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1% 또는 1인당 미화 239달러에 해당한다. 총 지출액은 2년 연속 증가하여 처음으로 미화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7년보다 2.6%, 2009년에 비해서는 5.4% 더 높은 수치이다.

2018년 총 지출액의 증가는 미주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지출액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유럽에서는 지출이 1.4% 증가했는데, 세 나라를 제외한 서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군사비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지역은 군사비 지출이 8.4% 감소했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11개 중동국가의 총 군사비 지출은 작년 대비 1.9% 감소했다.

2017-18년 군비부담(국내총생산 대비 군비지출)은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유럽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유럽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2024년까지 나토 권고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2%까지 증액할 것을 압박하고 있어 유럽지역 군비부담이 증가하였다. 2018년 미주지역 국가들의 평균 군비부담은 1.4%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유럽 1.6%,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7%, 일부 중동 국가 4.4%로 갈수록 부담률이 증가했다.

2018년도 세계 군사비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순으로 총 지출액의 60%를 차지했다.

## 세계 군사비 지출, 2018

지역	지출 (US\$ 단위:억 달러)	증감률 (%)
아프리카	(40.6)	-8.4
북아프리카	(22.2)	-5.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8.4	-11
미주	735	4.4
중미 및 카리브해	8.6	8.8
북미	670	4.4
남미	55.6	3.1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507	3.3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85.9	4.2
동아시아	350	4.1
오세아니아	29.1	-2.9
동남아시아	41.9	-0.8
유럽	364	1.4
중앙유럽	28.3	12
동유럽	69.5	-1.7
서유럽	266	1.4
중동	..	..
전세계	1822	2.6

( ) = 불확실한 수치; .. = 데이터 확인 불가.

현 지출 수치(2017) 미화 달러로 표시. 모든 증감률은 2017-18 실질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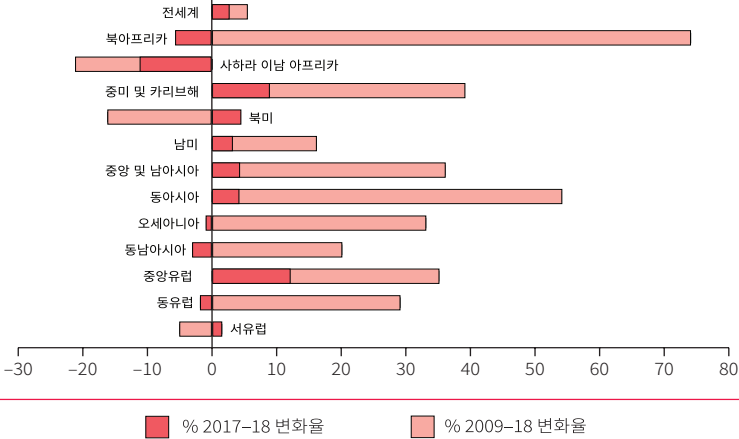
미국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비를 증액해 2018년 미화 6,4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계 군사비 지출의 36%에 달하는 수준으로, 2위를 차지한 중국보다 2.6배 많았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는 병력 급여 2.4% 인상과 값비싼 재래식 및 핵 무기 구입사업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2018년 자국군에 미화 약 2,500억 달러를 책정했는데 이는 2017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총 83% 증가한 수치이다. 2018년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8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위지역별 군사비 지출 비중 추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8.8%로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비부담을 기록했다. 지출액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미화 676억 달러이다. 그 뒤를 이어 인도(미화 665억 달러)와 프랑스(미화 638억 달러)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2018년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미화 614억달러로 냉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보다 22% 감소했으며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군사비 지출 상위 5개국에 들지 못했다.

2017-18년 군사비 지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국가는 부르키나 파소(52%), 자메이카(40%), 아르메니아(33%) 순이었고 상대적으로 가장 가파른 감소폭을 보인 국가는 남수단(50%), 수단(49%), 베냉(28%)이다.

## 군사비 지출의 투명성

군사비 지출에 관한 유엔 보고서 제출은 2018년에도 저조했다. 2002년 81개국이 제출한 것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단 36개국이 군사비 지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반면 SIPRI는 2018년 군사비 지출 정보 수집을 시도한 168개국 중 155개국에 대한 데이터를 입수했다. 그 중 150건이 정부 공식 문서를 출처로 한다.

군사비 지출의 투명성은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포괄적이어야 하고,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군사활동의 다양한 자금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군 예산을 군사 및 비군사 활동으로 분리하는 것은 군사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군에 배정된 비용을 비군사 활동 비용으로 정확히 구분함으로써 군사비 지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였다. ●



## 5. 국제무기이전과 무기생산동향

주요 무기의 국제이전 규모는 2009-13년 대비 2014-18년에 7.8% 증가해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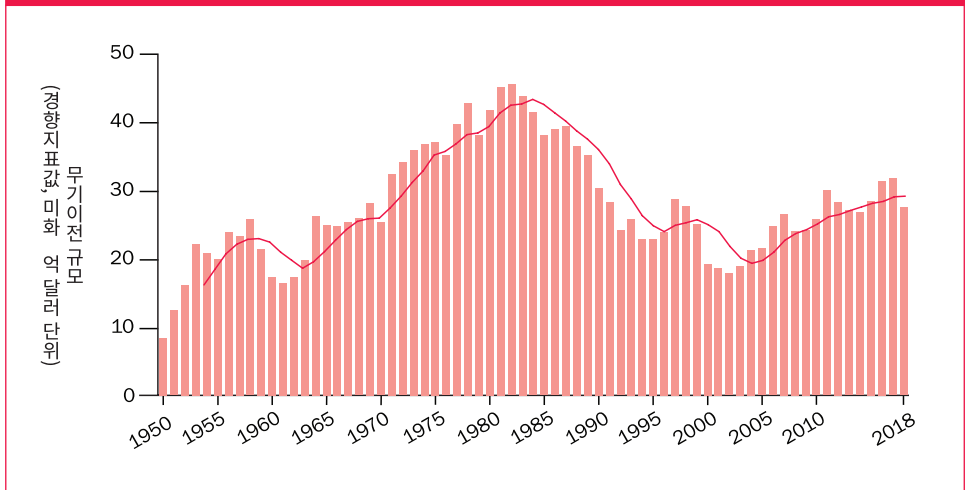
2014-18년간 최대 무기수출 5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으로 전 세계 주요 무기 수출량의 75%를 차지했다. 미국과 러시아(1992년 이전에는 구소련)는 1950년 이후 꾸준히 최대 수출국 자리를 유지해왔으며,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상위 10개 무기수출국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미국은 2014-18년 5년 동안 최대 무기수출국이었으며, 적어도 98개국에 무기를 수출했다. 미국과 나머지 무기수출국간 수출규모 격차 또한 커졌는데, 미국의 무기수출은 2위를 차지한 러시아보다 2009-13년의 경우 12% 높았으며, 2014-18년에는 75% 높았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주요 무기수입지역 recipient region으로 2014-18년 전 세계 주요 무기수입의 40%를 차지했다. 중동은 수입의 35%를 차지했다. 2009-13년 대비 2014-18년 동안 중동으로 유입된 무기는 87% 증가했다. 반대로 이 기간 동안 나머지 지역으로 공급된 무기 규모는 감소했으며, 각 지역별로 미주 36%, 유럽 13%,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6.7%, 아프리카 6.5% 감소했다. 세계 최대 무기수입 상위 5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집트, 호주, 알제리 순으로 전체 무기수입의 35%를 차지했다.

최대무기수입 집단은 수출집단에 비해 그 구성이 다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변화를 보였다. SIPRI는 1950년 이후 255개 주체(202개 국가, 48개 비국가 무장단체, 5개 국제조직)가 최소 1년 동안 주요 무기를 공급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들 중 26개 주체는 1950년부터 2018년에 걸쳐 매해 무기를 수입하였으며, 다른 3개 주체는 이들이 존속했던 기간 내내 무기를 수입하였다.

주요무기 이전 추세, 1950 - 2018



**주요 무기 수출입국,  
2014 - 18**

수출국	세계 점유율 (%)	수입국	세계 점유율 (%)
1 미국	36	1 사우디아라비아	12
2 러시아	21	2 인도	9.5
3 프랑스	6.8	3 이집트	5.1
4 독일	6.4	4 호주	4.6
5 중국	5.2	5 알제리	4.4
6 영국	4.2	6 중국	4.2
7 스페인	3.2	7 아랍에미리트	3.7
8 이스라엘	3.1	8 이라크	3.7
9 이탈리아	2.3	9 한국	3.1
10 네덜란드	2.1	10 베트남	2.9

**무기 이전의 투명성**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UNROCA)에 무기 수출입을 보고한 국가 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여러 국가 및 지역차원의 보고체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더 많은 국가가 ‘2013년 무기 거래조약(ATT)’을 비준하면서 조약상의 무기 수출입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 수도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18년에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중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 비율은 감소했다.

**국가 무기수출의 재무 가치(2017년)\***

SIPRI 무기이전 데이터는 이전된 무기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무기수출국들이 자국이 수출한 무기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로 환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SIPRI는 2017년 세계 무기거래의 총 가치는 적어도 미화 9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가용 데이터 기준 최신 년도

**지역 및 하위지역별  
주요무기 수입 세계점유율, 2014-18**

지역	세계 점유율(%) 2014-18
아프리카	7.8
북아프리카	5.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
미주	6.2
중미 및 카리브해	-
북미	-
남미	2.4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40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1.6
동아시아	10
오세아니아	4.8
남아시아	14
동남아시아	9.4
유럽	11
중앙유럽	-
동유럽	-
서유럽	-
중동	35
기타	0.1

- = 없음.

‘기타’는 국제조직(몇몇 비국가 행위자) 중 한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거나 특정 지역에 연계될 수 없는 불명확한 수입처를 의미함.

**무기생산과 군수기업**

SIPRI가 발표한 세계 100대 무기생산 및 군수기업은 국내 판매와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실적을 기록한 군수산업 관련 기업들이다(중국 제외). 2017년\* SIPRI 100대 무기생산업체 및 군수기업의 총 매출액은 미화 3,980억 달러로 2016년 대비 2.5% 증가했다. 매출액이 증가한 원인은 주로 중동지역 등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의 무기조달 비용이 늘어난 데 있다. ●



## 6. 세계 핵전력

2019년 초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9개국이 약 13,8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750개가 작전 병력에 배치되었다. 그 가운데 2,000여개는 고도의 작전경계태세로 유지되고 있다.

### 핵무기 보유상황

전반적으로 핵탄두 재고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주로 세계 핵무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일방적 감축과 함께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 따라 전략 핵전력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국가의 감축 속도는 10년 전과 비교해 느려졌으며, 미국과 러시아 모두 핵전력을 감축하는 협상을 계속하지 않았다. 동시에 두 국가는 핵탄두, 미사일, 항공전달체계, 핵무기 생산 시설 교체 및 현대화를 위한 고비용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2018년 미국 국방부는 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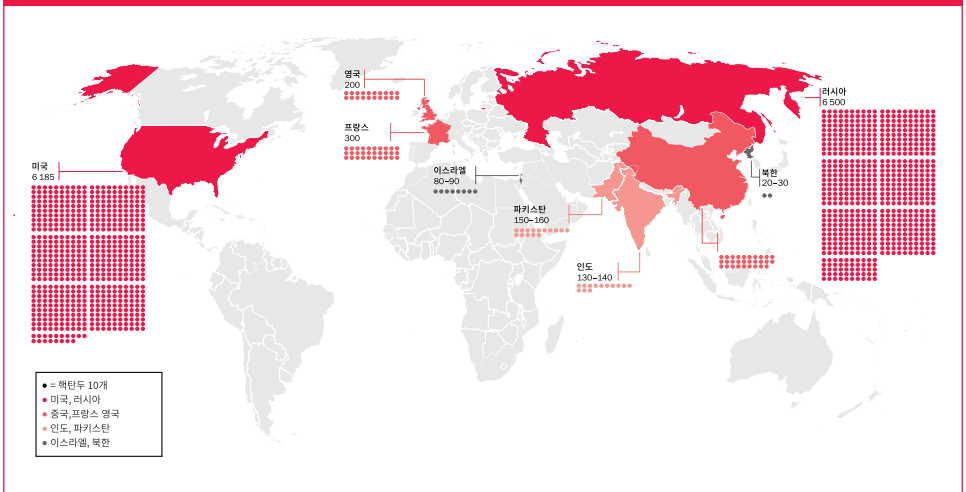
운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의 확장된 군사적 역할 및 임무 변경을 위한 계획을 착수했다.

다른 핵무장 국가의 경우, 핵무기 보유 규모는 훨씬 작지만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 또는 배치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점차적으로 핵무기 보유 규모를 늘리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0년 후 상당한 핵무기 비축 규모에 이를 정도의 수준으로 군용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핵무기 실험 모라토리엄을 발표했으나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요소로써 군용 원자력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

### 투명성 결여

핵무기 보유 현황과 핵전력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의 여부와 정도는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과 영국은 각 국가의 핵비축 상황과 핵전력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일부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러시아

2018년 전세계 핵무기 비축



### 2018년 세계 핵분열 물질 보유 현황

핵무기 원료는 핵분열 물질로서 고농축우라늄 (HEU)이거나 추출 플루토늄을 사용한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 용도로 생산했다. 인도와 이스라엘은 주로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파키스탄은 주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만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했는데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간 원자력 산업을 보유한 모든 국가가 핵분열 물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제 핵분열 물질에 관한 전문가 패널 (IPEM)은 전 세계 핵분열 물질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세계 보유 현황, 2018

고농축우라늄	~1 340 톤
추출 플루토늄	
균용 보유량	~220 톤
민간 보유량	~300 톤

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에 명시된 핵전력의 세부 사항을 미국과는 공유하나 대외적인 공개는 거부했다. 중국은 이전보다 더 자주 핵전력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핵전력 개수나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는 일부 미사일 실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핵무기고의 규모나 상태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시행했다고 인정했으나 핵무기 능력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핵무기고에 대한 지속적인 비공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 2018년 세계 핵전력

국가	배치된 탄두	기타 탄두	총비축량
미국	1 750	4 435	6 185
러시아	1 600	4 900	6 500
영국	120	80	200
프랑스	280	20	300
중국	-	290	290
인도	-	130-140	130-140
파키스탄	-	150-160	150-160
이스라엘	-	80-90	80-90
북한	-	(20-30)	(20-30)
<b>총계</b>	<b>3 750</b>	<b>10 115</b>	<b>13 865</b>

-는 0, ()는 불확실한 수치로 총계에서 제외. '기타 탄두'란 저장고에 보관된 작전 탄두와 해체 예정 탄두를 포함한다. 러시아와 미국의 수치는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집계 규칙으로 인해 협정에 명시된 수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총계는 범위 내 가장 높은 추정치를 포함한다. 모든 수치는 2019년 1월 기준 근사치다.



## 7.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 확산 방지

### 북한-미국 간 핵 대화

2018년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폐기하는 것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에 새로운 정치적 노력이 있었다.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폐기는 미국의 오래된 요구였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러 번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한과 미국의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은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핵무기 실험장을 폐기했다.

### 러시아-미국 간 핵 군비통제

2018년 러시아와 미국은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이행을 완료했다. 지난 2월 두 나라는 지정한 마감일에 맞춰 신전략무기감축조약 최종 전력감축제한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양국의 정치 군사적 차이를 보았을 때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요원해 보인다. 두 당사국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2021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2018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 중거리핵전력조약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비통제는 냉전시대의 군비통제조약인 1987년 미소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에 대한 골이 깊어짐에 따라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미국은 러시아가 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사정거리의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러시

아는 그러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계속 부정하고 있다. 10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약을 준수하는데 미국의 우려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정식으로 중거리핵전력조약을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어느 쪽도 중거리핵전력조약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비판론이 증대되면서 2018년을 마감했다.

###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8개 당사국 동의 하에 이란의 핵 확산 민감활동-proliferation-sensitive nuclear activities을 제한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국제적인 신뢰를 쌓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란은 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다. 5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의 참여 중단 및 대이란 제재 재개에 대한 발표를 함에 따라, 이란과 미국 간의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이란 정부는 다른 서명국들 특히 유럽 연합에 이란이 협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아래 이란의 주요 혜택 중 하나로 최소한의 제재완화에 대한 보장을 요구했다.

### 핵무기금지조약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WN)은 협상 완료 및 서명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 핵무기 군비축소는 장기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가장 중심에 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개발, 배치, 보유, 사용, 및 사용의 위협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국가에서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여부에 대해 수 많은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중심은 제안된 핵무기금지의 규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하의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공격무기의 총합  
(2011년 2월 5일과 2018년 9월 1일)

데이터 범주	조약의 제한 수치 <sup>a</sup>	러시아		미국	
		2011년 2월	2018년 9월	2011년 2월	2018년 9월
배치된 ICBM, SLBMs, 중폭격기의 개수	700	521	517	882	659
배치된 ICBM, SLBM, 중폭격기의 탄두의 개수 <sup>b</sup>	1 550	1 537	1 420	1 800	1 398
배치되거나 배치되지 않은 ICBM, SLBM, 중폭격기의 발사대 개수	800	865	775	1 124	800

ICBM = 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up>a</sup> 2018년 2월 5일까지 도달해야 하는 개수

<sup>b</sup> 각 중폭격기는 1개의 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개수

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핵억제 기반의 안보전략과 동맹 이행에 관한 것이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50개국이 서명 및 비준하면 발효된다.

### 다자간 군비통제와 군비축소

2018년 한 해 동안 핵 군비통제와 관련해 여러 발전이 있었다. 4월-5월,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제 2차 준비위원회회가 열렸고, 5월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새로운 군축 의제 ‘모두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Securing Our Common Future’를 발표했다. 6월에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고위급 전문가 그룹이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의 향후 협상을 위한 범위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12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2019년 중동에 비대량살상무기금지대(weapons of mass destruction-free zone) 설립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 8.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 의혹 검토는 2018년에도 계속해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주요 업무였다. 예를 들어, 4월 7일 시리아 두마 Douma에서 일어난 공격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1주 뒤에 세 군데 지역에 보복 타격을 가하는 결과를 촉발했다. 3월, 시리아 외에 영국에서 솔즈베리 Salisbury에서 노비축 Novichok 신경가스계의 독성 화학물질이 사용되어 세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6월, 동일한 가스에 두 명이 더 노출되었고 그 중 한 명은 7월에 사망하였다.

###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 권한

위와 같은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와 사용이 발견된 곳의 책임 권한 문제는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당사국 간의 커다란 분열을 가져왔다.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합동 조사 의무가 종결되면서, 국제사회에는 이미 입증된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할 능력에 공백이 생겼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는 2018년 1월 화학무기 사용 불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적 파트너십을 발족했으며 2018년 말까지 38개국과 유럽연합(EU)이 가입했다.

5월에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상주대표 11명이 화학무기사용 금지 촉구에 대한 의제를 다루는 당사국회의 특별세션을 요청했다. 6월 이들 동안 열린 이 특별 세션에서 화학무기금지기구에 더욱 확실한 책임을 이양하도록 주장했다. 이 결정을 지지하는 당사국들은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주장을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권한 매커니즘은 필수적이라고 여긴다. 이에 반대하는 당사국들은 이러한 의견들이 화학무기금지기구를 정치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분열은 적어도 잠시 동안은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문화를 사실상 훼손했고 당사국 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했다. 이러한 긴장은 제2차 당사국회의와 제4차 검토회의에서 모두 발생했다.

### 생물무기 군비통제

2018년 핵심적인 생물무기 군축과 비확산 활동들은 회기간 전문가 회의의 첫 부분과 생물및독소무기금지협약(BWC) 당사국 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12월에 열린 당사국 회의에서 비록 재정상황에 대한 추가 논의는 2019년에 열리지만 생물및독소무기금지협약의 미래 재정지속성을 보장하는 일련의 실질적인 조치를 승인했다. 예상치 않게 당사국 회의는 전문가 회의의 심의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단일 대표자의 ‘완고함 obstinacy’과 회의의 낡은 방식을 강조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생물및독소무기금지협약 관련 워크숍들은 평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열렸다. ●





## 9.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수단

###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 및 자율살상무기체계

2018년 자율살상무기체계(LAWS)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은 1981년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CCW Convention)의 틀 안에서 계속되었다. 지난 해에 이어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논의가 정부전문가그룹(GGE) 안에서 진행되었는데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특성분석 및 군사력 사용에서 인간이 담당하는 영역과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의 측면, 관련된 기술의 잠재적 군사적 활용, 신형 자율살상무기체계 기술로 인해 직면하게 된 인도주의적, 국제안보의 도전을 다루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동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정부전문가그룹의 의무는 2019년까지 연장되었다.

### 유엔소형무기행동계획

2001년 유엔소형무기행동계획(UNPOA) 제3차 검토회의가 2018년 6월 개최되었다. 몇몇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탄약과의 연계성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결과문서가 초반 작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유엔소형무기행동계획의 범위와 연관성을 높이는 언어를 포함하였다.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분열이 비국가행위자에게 무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언어를 채택하는 것을 막았다.

### 사이버 안보

2005년에서 2018년 사이,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사이버공격이 250회 이상 있었다. 하지만 유엔이 사이버안보에 대해 지난 20여년동안 토론한 결과, 위협의 본질과 그것을 다루게 하는 조건들에 대한 공통되는 기반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가들은 두 가지 입장으로 갈라졌다. 하나는 대부분 서구 국가들로서 정보통신기술(ICTs)의 확

### 유엔 사무총장의 군축을 위한 새로운 의제

2018년,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안전하게'라는 새로운 군축 의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생화학 및 핵무기 감축 및 제거를 통해 인류를 구하는 군축, 재래식무기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군축, 신 군사기술을 다룸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군축 이 세 가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인구밀집지역에서 폭발 무기 사용이 민간인에게 갖는 불균형적 효과에 주목한다.

산을 긍정적인 경향으로 다루고 현존하는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서 국가 행동을 안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가 집단은 디지털화를 위협으로 간주하며 국가의 사용과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안내를 더 선호한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과 같은 몇몇 지역 기구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또한 중요한 국가 및 기업의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있었다. ●



## 10.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2018년에도 재래식 무기와 재래식, 생화학, 핵무기 및 그 전달체계와 관련된 이중용도 거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다자간, 지역적 노력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확대된 국가적 자원들로 인해 점점 더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2013년 무기거래조약(ATT) 하에 위임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로 보일 수 있다. 많은 경우 유엔 무기금수조치 위반을 보고했고 몇몇 수출 통제체제에서 의장과 같이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는 당사국을 찾는 것의 어려움을 보고했다.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과 빠른 기술발전 속도가 더 폭넓은 목적과 수출 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국제적 동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 무기거래조약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제4차 회의가 2018년 8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전용<sup>diversion</sup>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했지만, 저소득 국가의 참여와 그 조약의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의 행정에 대한 논의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무기거래조약의 보고와 자금 조력의 의무 준수 정도는 계속해서 여러 부분에서 감소하고 있고, 장기적 관계성과 조약의 상태에 대한 분명한 도전 또한 계속되고 있다. 본 조약을 국제적으로 보편화 하려는 노력은 최근 몇 해 동안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고, 2018년 말까지 무기거래조약 당사국은 100개국 이 되었다. 하지만 회원 국가들은 주로 유럽 및 아프리카, 미주 국가들로 구성 되어있는 등 지리적으로 균등하지는 않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무기이전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분명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무기거래조약과 가장 약한 관계를 맺고 있다.

## 발효중인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2018년

### 유엔(14개 무기금수조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부분적) • 콩고민주공화국(부분적) • 에리트레아(2018년 11월 해제)  
• 이란(부분적) • 이라크(NGF) • 이슬람국가(Da'esh), 알-카에다 및 관련 개인과 분대 • 북한 • 레바논(NGF) • 리비아(부분적) • 소말리아(부분적) • 수단(Darfur)(부분적) • 탈레반 • 예멘(NGF)

### 유럽연합(21개 무기금수조치)

유엔 무기금수조치 이행(10개):

• 알-카에다, 탈레반 관련 개인과 분대 • 중앙아프리카공화국(부분적) • 콩고민주공화국(부분적) • 에리트레아(2018년 11월 해제) • 이라크(NGF) • 레바논(NGF) • 리비아(부분적) • 북한 • 소말리아(부분적) • 예멘(NGF)

유엔 무기금수조치 변용 적용(2개):

• 이란 • 수단(Darfur)

유엔 무기금수조치 이전 설정(1개):

• 남수단

유엔과 무관한 독자 무기금수조치(8개):

• 벨라루스 • 중국 • 이집트 • 미얀마 • 러시아 • 시리아 • 베네수엘라 • 짐바브웨

### 아랍연맹(1개 무기금수조치)

• 시리아

ISIL = 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레반트와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국가)  
NGF = non-governmental forces(비정부군대); 부분적 =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는 해당 국가 정부에 무기거래가 가능하다.

##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2018년에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36개가 시행되었다. 유엔에서 부과한 것이 14개, 유럽연합(EU)에서 부과한 것이 21개, 아랍연맹에서 부



과한 것이 1개이다. EU의 무기금수조치 21개 중  
에서 10개는 유엔 무기금수조치를 직접 적용한  
것이고, 2개는 유엔 무기금수조치와 비슷하나  
포함된 무기의 종류 또는 지역적인 범위가 다른  
것이며, 마지막으로 8개의 경우 유엔 조치와 무  
관하다. 대부분 무기금수조치는 재래식 무기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과 EU의 대  
이란 및 대북한 무기금수조치와 EU의 대러시아  
와 대시리아의 무기금수조치를 보면 이중용도  
품목 수출까지 포함하고 있다.

2018년에는 남수단에 대한 유엔의 무기금수조  
치가 새롭게 부과되었다. 그리고 유엔과 EU가  
2009년에 부과한 에리트레아의 무기금수조치  
가 해제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엔이 실시한  
조사와 같이, 유엔은 무기금수조치를 시행하는  
데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밝혀냈고 또한 상당 수의  
보고된 위반 사례들을 밝혔다. 위반사항의 심각  
성과 범위는 상당히 다양한데, 무기금수조치에  
반하는 많은 양의 무기 운송이 발생한 경우나,  
공급국 또는 수입국이 무기 이전을 제재위원회  
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 수출통제체제

최근에 확장된 네 가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원  
자력공급국그룹(NSG)재래식무기와 전략 물자  
및 기술 수출통제에 대한 바세나르 체제(WA)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2018년 네 가지 체제는  
각각의 거래통제 목록과 가이드라인을 갱신했  
다. 예년과 같이 수출통제체제는 기술발달과 불  
법조달노력들을 따라잡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서로 간의 증대된 교류를 통해 이런 문제들에 대  
해 도움을 받았다.

EU는 이중용도무기와 보다 더 제한된 의미에서  
무기거래통제에 대해 공통적인 법적 틀을 만든  
유일한 지역기구이다. 2018년에 EU 기관들은  
계속해서 EU의 이중용도규제를 ‘재구성<sup>recast</sup>’하  
였으며, EU 무기수출에 대한 공통적 입장에 대  
한 검토를 시작했다. 유럽연합의회와 비정부단  
체들은 위 두 경우 모두에 대해 특별히 인권과  
국제인도주의법에 관한 표현을 강화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했다. 몇몇 EU 회원국들  
은 제안된 변화에 반대하기도 했다.

###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2018년 미국과 EU, 많은 EU 회원국들은 ‘민감’  
하거나 ‘전략’적인 기술 이전을 규제하고자 해외  
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를 늘렸다.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수출 통제의 효용성 문제가 민간분  
야에서 군사 관련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관  
련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에 대한 해외투자 증가  
등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기술거래에 대한 제제  
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규제하는 시도들은 결  
국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  
가들이 기꺼이 수출제재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비취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도들은 무  
기와 이중용도 물건들의 불안정한 이전을 예방  
하기 위한 다자간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수출통  
제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에 관한 현행 협정  
(2019년 1월 1일 기준)**

- 1925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물질의 전시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1925 제네바 의정서)
- 1948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노사이드 조약)
- 1949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제협약 (제4협약); 1977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네바제협약추가 의정서-제1, 2의정서)
- 1959 남극조약
- 1963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금지 조약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PTBT)
- 1967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외기권 조약 / 우주 조약)
- 1967 라틴아메리카의 핵무기금지에 관한 조약 (트라테로코조약)
- 1968 핵무기비확산조약 (핵확산금지조약, NPT)
- 1971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도에 있어서의 설치 금지에 관한 협약 (해저비핵화조약)
- 1972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생물독성무기협약, BTWC)
- 1974 지하 핵실험 제한 협정 (TTBT)
- 1976 평화 목적의 지하 핵폭발에 관한 조약 (평화 목적의 핵폭발 조약, PNET)
- 1977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협약)
- 1980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 1981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CCW 협약, 또는 비인도적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 1985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라로통가 조약)
- 1987 중사정 및 단사정미사일의 폐기에 관한 조약 (중거리핵전력조약 / INF 조약)
- 1990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 조약)
- 1992 항공자유화조약
- 1993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화학무기금지조약, CWC)
- 1995 동남아비핵지대조약 (방콕조약)
- 1996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펠린다바조약)
- 1996 소구역 군축협약 (플로렌스 협정)
- 1997 화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관련 자재의 불법 제조 및 밀거래에 대한 미주 간 협약 (CIFTA)
- 1997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이전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 APM협약)
- 1999 재래식 무기 인수의 투명성에 관한 미주 간 협약
- 2001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지역 내 화기, 탄약 및 기타 관련 자재의 통제에 관한 의정서
- 2004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및 아프리카의 빨 지역 내 소형무기의 방지, 통제, 축소에 관한 나이로비 의정서
- 2006 소형무기 및 탄약, 기타 관련 자재에 관한 서 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협약
- 2006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 조약 (세미팔라티스크 조약)
- 2008 확산탄금지협약
- 2010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 2010 소형무기 및 탄약, 그것의 제조, 수리 및 조립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부품 통제에 관한 중앙 아프리카 협약 (킨샤사 협약)
- 2011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2011년 비엔나문서
- 2013 무기거래조약 (ATT)



## 미효력 협정 (2019년 1월 1일)

199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1999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개정

2017 핵무기금지조약

## 안보 협력 기구

2018년에는 인도의 호주그룹(Australia Group) 가입, 우크라이나의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탈퇴, 6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의 남미국가연합(UNASUR: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회원국 참여 중단과 같은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

## 2018년 주요 사건 연대기

- 1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트위터상 핵 위협 공방
- 2월 28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와 안보 협력을 위한 카불 프로세스의 두번째 회의 개최
- 3월 4일. 전직 러시아 장교와 그의 딸, 영국 솔즈베리에서 노비축이라고 밝혀진 신경작용제 독극물에 중독
- 4월 13일. 미국, 프랑스, 영국의 시리아 공습 단행, 화학무기 저장고로 의심되는 시설 및 연구시설 공습
- 5월 8일.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탈퇴 선언
- 6월 12일.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 성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 의지 재천명
- 7월 8-9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간 국경 분쟁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공동 선언 발표
- 8월 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준칙 초안에 합의
- 9월 12일. 남수단 살바 키르 대통령과 반군 지도자 리크 마차르,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 협정 체결
- 10월 27일. 시리아 내전의 평화적 해결 모색을 위한 프랑스·독일·러시아·터키 4자 정상회담 이스탄불에서 개최
- 11월 29일. 우주군 창설 계획에 대한 미 대통령 명령 초안 발표
- 12월 4일. 미국,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을 시 60일 이내 조약 이행 중단 예고



## 피스모모

피스모모는 수평적 서로배움을 통해 실천적 사유의 시민공동체를 확장함으로써 더 평화롭고 덜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평화활동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모모”라는 이름은 모두가 모두에게 배운다는 ‘서로 배움’에 대한 지향과 미하엘 엔데의 동화 ‘모모’에 담긴 근현대의 폭력적인 시간성에 대한 성찰과 깊은 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양한 생명과 존재들 모두에게 귀 기울이는 배움을 통해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근대적, 기계적, 강박적 시간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머뭇거림의 시간, 깊은 사유의 시간을 창조하고자 한다. 돌아봄과 돌봄이 부재한, 전체주의적 교육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들의 서로 배움”이라는 교육의 변화와 이를 통한 사회의 평화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본 연구소는 피스모모의 평화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사업을 통하여, 평화와 교육분야의 인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피스모모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천의 내용적 심화와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PEACE  
MOMO  
피스모모  
PEACEMOMO

홈페이지: [peacemomo.org](http://peacemomo.org)  
이메일: [peacemomo0904@gmail.com](mailto:peacemomo0904@gmail.com)  
대표번호: 02-6351-0904  
팩스: 303-3441-0904  
주소: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미래청 303-A

 TEPI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TRANS-EDUCATION FOR PEACE INSTITUTE

홈페이지: [momotepi.org](http://momotepi.org)  
이메일: [momotepi1211@gmail.com](mailto:momotepi1211@gmail.com)  
대표번호: 02-6352-0904

## SIPRI 데이터베이스

**SIPRI 군사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1949년 이래 국가들의 연간 군사비 지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군사비 지출액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별 통화 금액을 US 달러로 일정하게 환산하고, 국내총생산(GDP)을 제공한다.

**SIPRI 무기 산업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100개 회사들의 2002년 이래 총 수익과 무기판매 및 군사 용역을 통한 업체별 수익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기업 제외)

**SIPRI 무기 이전 데이터베이스** 1950년 이후 주요 국제적 재래식무기 이전에 대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IPRI 무기금수조치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 유엔, 또는 국가간 조직과 같은 국제기구가 시행한 모든 무기금수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1998년부터 시행되어온 모든 금수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SIPRI 국가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무기 수출에 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국가 보고서의 링크를 제공하며, 새롭게 발간되는 국가 보고서의 링크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다.

**SIPRI 다자간 평화활동 데이터베이스** 2000년 이후 실시된 모든 유엔 및 비유엔 평화활동에 대한 정보 (위치, 배치 및 활동 기간, 수행과제, 참여국가, 수행인원, 비용, 사망자수 등)를 제공한다.

SIPRI 데이터베이스는 SIPRI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gnalistgatan 9  
SE-169 72 Solna, Sweden  
Telephone: +46 8 655 97 00  
Email: sipri@sipri.org  
Internet: www.sipri.org

### 2019 시프리 연감 구매하는 방법

#### 2019 시프리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영문)

Oxford University Press 온/오프라인 출판

ISBN 978-0-19-883999-6, 양장본

ISBN 978-0-19-187561-8, 전자책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ipriyearbook.org](http://www.sipriyearbook.org)에서 확인 가능함.



번역 문아영, 이정철, 전세현, 하니

편집 하니 | 감수 이대훈, 장수연, 정영주 | 디자인 돌고래프레스

# 2019 SIPRI YEARBOOK

## 군비, 군축, 국제안보

SIPRI 연감은 군비, 군비축소,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권위 있고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국제안보, 무기, 기술, 군사비 지출, 무기생산과 무기거래, 무력갈등, 갈등관리, 재래식무기, 핵무기, 생화학무기 통제와 관련한 개괄적 정세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2018년 정세를 다룬 SIPRI 연감 제50호를 요약한 자료이며,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무력분쟁 및 분쟁관리: 무력분쟁 및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개괄적 정보, 전 세계/지역별 평화활동에서 나타난 경향
- 군사비 지출, 국제무기이전, 무기생산동향
- 세계 핵전력: 9개 핵무장국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 분석
- 핵 군비통제: 북한-미국 간 핵 외교,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조약)을 둘러싼 동향, 러시아-미국 간 핵 군비통제 및 군축, 이란 핵 합의 이행 등을 주로 한 정보
-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중동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영국 암살 기도 의혹 내용 포함
- 재래식 군비통제: 국제규약에 중점을 둔 자율살상무기체계 및 주거지역 폭발무기 사용 규제 노력, 국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화
- 이종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기술이전 통제에 따르는 문제점을 포함한 무기거래조약, 다자간 무기금수조치와 수출통제체제 관련 주요 진전상황 등을 주요 골자로 함

이 외에도 부록으로 군비통제 및 군축 협정, 국제안보 협력기구 목록 및 2018년 주요 사건 목록을 수록하고 있음.